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수능)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A]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

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 독서 지문 분석법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 (-> 서론인가?)

(제재는 무엇인가?) '그레고리력'이 제재입니다. 또는 엄밀하게는 '그레고리력의 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론인가?) 제재가 제시되었으니 서론이라고 가정합니다.

(세부내용) 그레고리력이 제정되었고, 그레고리력이 부활절을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능 뭐든지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차곡차곡 쌓아나갑시다. 다만 춘분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이부분은 1문단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2문단에서 hint는 얻을 수 있습니다. 춘분 자체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절기인데, 이것을 몰라도 독해하는 것, 문제푸는 것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 책의 TIP) 세부내용의 이해에 관한 것은 추론적사고로 물어보니 문제 해설PART에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나와 있습니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해설 보기 전 대전제) 이 문단은 실제 수험생들이 멘붕을 당하기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이 문단이 이해가 안되면, 해설을 보고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의미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다 맞힌 다음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항상 모르는 지문이나 문제를 해설보고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바뀝니다. X + 해설 = NO!!

그럼 저 나가요? 아니요! 이런 공부에서는 몇 개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학습 전체가 틀린 문제 해설보기로 일관된다면 일관되게 성적은 안 오를 것입니다. 자 대전제를 깔았으니 시작해봅시다.

(2문단의 흐름) 이 문단을 딱 처음 봤을 때, (후에 판단해보면, 마지막문장이 일반적 진술이기에) 맨 처음엔 '율리우스력 애긴가부터' 하고 읽어도 됩니다. 율리우스력에 대해서 주옥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이해해 나가면 대략 내용이 '율리우스력이 실제보다 길어서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다까지 나옵니다.

(일반적 진술을 뽑아야 만하는 이유) 세부내용은 '항상' '전부 다' 중요하고, 거시적인 주제, 제재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지엽적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이 수능시험입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읽고 하나의 일반적 진술로 종합하지 않는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흩어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반적 진술을 뽑아줍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수능)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①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②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A]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④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

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도식화시켜보면 실제 읽을 때는 거시(독서분석능력) + 미시(세부적으로 읽는) 것이 전부다 되어야하고, 이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일반적 진술은 마지막 줄입니다. 결과(역법개혁명령)와 이유(율리우스력은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낳음)중에 '결과'가 구체적인 '이유'보다 일반적 진술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꼭 잘라서 엄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둘 다 머릿속에 남겨도 됩니다.

(일반적 진술은 제재와 연관시켜야한다.) 핵심은 무엇이나면? 이 2문단 내용을 읽고, 그레고리력의 제정이라는 '제재'와 연관시켜서 읽어 나가면 됩니다. 처음엔 대략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많이 하면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율리우스력은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낳았고, 그래서 그레고리력 제정을 명령했구나 이리식으로 하면 됩니다.

- 1문단은 그레고리력
- 2문단은 율리우스력의 문제점

기준에 이렇게 봤던 학생은 일반적 진술은 항상 '제재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 1문단은 '그레고리력'
- 2문단은 '그레고리력'의 제정 이유 : 율리우스력이 부활절과 맞지 않음

누가 이 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독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렇게 생각하려면 단 하나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제재와 연관된' 일반적진술

(문제를 맞히고 점검하는 세부내용)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가 조금씩 앞당겨져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이해가 잘 안될텐데 이것조차도 사실 누가 설명해주기보다는 스스로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달력' 4년이 '실제시간' 4년 2일(임의로 가정)을 먹어버렸으니 그런 식이 반복되면 40년 후면 달력상으로는 40년이 지났지만, 그안에 포함된 실제시간은 40년 10일이니 다음해 달력 시작일은 1월 1일일지라도, 달력이 실제시간 수십 일을 먹은 만큼 달력의 1월1일은 자꾸 실제 일 년의 시작일보다 10일가량 늦어지겠죠. 이미 실제시간 40년 10일은 지난거니까요. 이런식으로 반복되면, 달력의 1년이 시작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춘분이라는 실제 시간 상 절기가 금방오는 것입니다.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①그레고리력은 태양의 운동만을 기반으로 만들고, ②그 중 특히 그레고리력의 1년을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이 일반적 진술입니다. 물론 첫 줄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라고 해도 되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 좀 더 구체적인 수준의 일반적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해나면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일반적 진술'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레고리력은 무엇의 운동을 기초로 한거지? 했을 때 3문단 보자! 이렇게 됩니다. 또는 그레고리력은 1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면 3문단으로 가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3문단을 보고 있어야 가장 거시적인 독해를 잘 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수능)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①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②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④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

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래야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고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시험을 잘 보기위해서 독해를 해야 합니다. 허접스런 요약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적 진술을 찾는 능력의 '숙달'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 3단락 -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2, 3문단을 독해하고 우리가 규명해야 할 것은 2,3 문단과의 관계입니다.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겠죠. 2문단에 율리우스력의 정보가 나왔다면, 3문단에는 그레고리력의 정보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정도라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실력이 좋다면) 율리우스는 1년 길이는 365이고, 그레고리력은 1년의 길이를 회귀년으로 정했다. 이런 정도면 120점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 or 본문일 수 있다.**  
**(아슬아슬한 '경계의 줄'을 타라!)**  
**기준은 '주제'다.**

본문 4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 주제제시  
(= 제제+본문내용일반화+@)

(마지막 문단 읽는 법) 마지막 문단은 꼼꼼히 읽어나가되, '결론인가?', 주제를 제시했는가?'에 대한 것을 염두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제가 만나왔을 시 본문이기 때문에 일반적 진술이 무엇이고, 다른 문단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글로 쓰면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는 결론인가? 주제 제시했을까? 염두하면서 꼼꼼히 읽으면 자연스레 결론 또는 본문 자연스레 파악 될 것입니다.

(②문단 간 관계&①일반적 진술) 바로 3문단과의 관계가 첫 줄부터 있네요. 3문단에서 다루었던 1년의 길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에서 회귀년 항성년 차이 원인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세요. 그 다음 회귀년만 갖고 옵니다.(②문단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부분) 이것을 1년으로 채택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결과 윤년 system까지 율리우스력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이 문단의 일반적 진술이겠네요. (본문내용 일반화된 내용이 없으니 주제 없고, 결론도 아닙니다.)(마지막 줄만 그레고리력의 '의의' 이지만, 주제의 핵심요건은 '본문내용 일반화'입니다.)

(독서분석법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출제된 문제를 보면, 그레고리력 1년의 길이(2번문제의 ④선택지)와 율리우스력과 대비한 윤년system(3번문제의-①,③선택지)에 대해서 묻는데, 해매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이미 지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갈 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읽고 나서 keyword 중심으로 '그레고리력' '항성년' '윤년' 되버리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 같거든요' 이 글이 어려운 이유는 3,4 문단의 일반적 진술이 각각 크게 2가지 내용을 함축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진술 파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각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문제 풀다가 매번 다시읽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니' 시간이 오래걸리고 체감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읽는 것은 저도 하는 것이지만, '지도'를 알고 다시 읽는 것과 '아씨 이거 어디 있었지' 이리면서 다시 읽는 것은 '완

전 다릅니다' '확인'과 '방향'은 다르죠.

(수능시험은 간단하다 '2개 원칙 훈련'X12개년훈련) 결론은 '일반적 진술' 잘 뽑고, '관계를 말해주는 부분' 찾기 연습을 낮은 난이도부터 고난도까지 자연스레 끌어올리는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오래 안걸립니다. 6등급도 3개월만에 1등급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강좌소핑하다가 시간 버릴 시간에 누군가는 인생에서 새로운 꿈 새로운 대학을 꿈꿨습니다.

'2개원칙' X 12개년 훈련

(독서분석법이 그레고리력 독해의 key!) 2011학년도 최고난이도, 수능 역대급 고난이도 그레고리력의 성패는 독서분석법입니다. 수능 문제는 그냥 읽고 풀면 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읽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실제 문제 풀 때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읽고 풀어서 되는 학생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타고나게 추성훈처럼 팔근육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웨이트 훈련을 해야죠. 근데 수능 국어교육은 2만4천등(60만의 4%) 정도만 해도 1등이라 쳐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단말입니다.

(그믐달's view : 방법론의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시중 강의/해설은 지문분석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결론이다.

첫 문단에는 제제가 나온다

이런 책은 싹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론이 different한게 아니고, 그냥 wrong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서술하는 것은 몰라도, 제제를 제시해준다. 라고 쓰면 '틀린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실제시험장에서 첫 문단, 마지막문단을 각각 서론, 결론으로 박고 글을 보았을 때 글을 상당히 왜곡되게 독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수능)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

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율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그믐달 view] 독서분석법 상 2문단의 밑 줄 처진 일반적 진술(부활절을 지키지 못해서 역법개혁을 명령했다.)과 3, 4문단의 일반적 진술(율리우스가 그레고리력을 만들었다.)을 종합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게 잘 안되었다면, 추론적사고로 접근해봅시다.

[명시적인 근거1] 2문단 7행 ‘...(중략)...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명시적인 근거2] 3문단, 4문단에서 율리우스가 그레고리력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 교회가 역법 개혁을 명령했고, 그에 따라 율리우스는 만들었다.

####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1행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연결논리]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넘어갈 때, ‘한번에’ 10일이 사라졌다.

[결론] 두 역법 사이의 오차는 ‘한번에’ 수정되었군

②번 [명시적인 근거] X

[결론] 과학계에 반대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③번 독서분석법 상 4단락과 3단락의 [관계가 나와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3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1년의 길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항성년 회귀년의 차이에 대해 나오는데, 4단락의 첫 줄에서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 평균값 채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독서분석법으로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읽었다면 역시 자연스레 ③번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천문 현상에 원인 구명 관심을 보이면 맞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되었다면, 추론적 사고로 접근해봅시다.

[명시적인 근거1] 3단락 13행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명시적인 근거2] 4단락 1행 율리우스는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고...(중략)...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의 평균값을 채택...(중략)...

[연결논리] '엄밀히 하면' 지문에 제시된 천문 현상은 여러 가지인데 원인 구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추론할 부분은 없고, [명시적인 근거1, 2]에서 보듯, 회귀년-항성년 차이라는 천문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론] 그러므로 천문 현상의 원인구명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없다.

⑤번 1단락 5행

2.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은 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그름달 view]

<결과적인 만점도 10분걸리게 하는 지문(들)이 출제된다.>

그레고리력의 지문과 2번, 3번 문제를 잠시만 곱씹어 보세요. '시험 끝난 후 결과적인 만점도 10분 이상 걸리게 하는 지문'이 출제됩니다.' 라는 명제를 기억하세요. 쉽게 말해, 그레고리력 9분만에 풀면 잘한 것입니다. 10분만에 풀어도 잘한 것입니다. 11분도 무난히 잘 한 것입니다. '엄마 난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 인 것입니다. 이에 맞게, 마인드셋도 고쳐야하고, 훈련방법도 고쳐야합니다.

<틀린 문제 해설 금지 - 사고력 발전의 '악순환'을 타게 된다.>

틀린 문제 해설보지마세요. 2번 문제의 ①선택지 보름달은 '꼭 찬 달의 모양'이잖아. 라고 해설 듣는 순간 그레고리력 지문은 '날리는 것'입니다. 정답 ③번 해설지보고, 강사님 해설듣고 태양의 운동'만을' 고려한 거잖아 라고 듣는 순간 국어에서는 고득점은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찾아내세요. 그걸 수험생활 동안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음력이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다는 것은 <보기> 1행에 이미 있습니다.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역시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는지 추론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2:1 대응이라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명시적인 근거2]를 스스로 찾아내야지 실력이 늡니다.

[명시적인 근거1] 2문단 2행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 (중략)'

[명시적인 근거2] 3문단 3행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

[연결논리] [명시적인 근거1]에서 서양의 태양력이 율리우스력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명시적인 근거2]에서는 '태양력'이 율리우스력인지, 그레고리력인지, 둘 다인지는 몰라도, 두 역법 모두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결론] 그러므로 서양의 태양력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그믐달 view] 가장 높은 오답률 (20%)을 기록한 선택지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추론적 사고' 보름달을 달의 모양과 관련시켜 추론할 수 있는가? 가 핵심이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근거] 2단락 6행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연결논리]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다. 보름달은 달의 모양으로 볼 때, 꼭 찬 달의 모양이다.

[결론] 부활절을 정할 때, 달의 모양을 고려했다.

음력도 역시 같은 추론과정입니다. 생략합니다.

②번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은 태양의 운동을 기준으로 했고, 음력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

③번 독서분석법 상 4단락과 3단락의 [관계가 나와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3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1년의 길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항성년 회귀년의 차이에 대해 나오는데, 4단락의 첫 줄에서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 평균값 채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독서분석법으로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읽었다면 역시 자연스레 ③번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천문 현상에 원인 구명 관심을 보이면 맞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되었다면, 추론적 사고로 접근해봅시다.

[명시적인 근거1] 3단락 13행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명시적인 근거2] 4단락 1행 율리우스는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고...(중략)...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의 평균값을 채택...(중략)...

[연결논리] '엄밀히 하면' 지문에 제시된 천문 현상은 여러 가지인데 원인 구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추론할 부분은 없고, [명시적인 근거1,2]에서 보듯, 회귀년-항성년 차이라는 천문현상의 원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론] 그러므로 천문 현상의 원인구명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없다.

⑤번 1단락 5행

3.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명시적인 근거1] 4문단 2행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 했다.'

[명시적인 근거2] 2문단 2행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연결논리] ㉠그레고리력은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이용 했다. ㉡율리우스력 제정 당시 알려진 것보다 당연히 더 정확할 것이다.

[결론]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그믐달 view] ③번 독서분석법 상, 4단락으로 바로 갈 수 있어 아쉽습니다. 4단락의 일반적 진술이 회귀년을 바탕으로 그레고리력의 1년의 길이와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윤년 system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년 어딤지?' 라고 해맸다면, 확실히 독서분석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추론할 수 있는 근거]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

[연결논리] 율리우스는 4의 배수가 전부 윤년이다. 반면, 그레고리력은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배수가 평년으로 빠진다. 물론 400의 배수는 윤년이 유지된다. 그럼 결국 그레고리력에선 4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4700 이런 식으로 평년으로 빠지게 된다.

[결론] 그레고리력에선 1700은 평년이다. 율리우스력에선 윤년이다.

- ③번 [결론]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력보다 윤년이 덜 돌아온다.
- ④번 [명시적인 근거] 마지막 문단 10행
- ⑤번 [명시적인 근거] 마지막 문단 마지막행

4.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 ㉡   | ㉢   |
|---|----|-----|-----|
| ① | 항성 | 항성년 | 회귀년 |
| ② | 항성 | 회귀년 | 항성년 |
| ③ | 지구 | 회귀년 | 회귀년 |
| ④ | 지구 | 항성년 | 회귀년 |
| ⑤ | 지구 | 회귀년 | 항성년 |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대부분의 학생들이 ㉡, ㉢를 먼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2행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결론] ㉡는 항성년, ㉢는 회귀년이다.

㉠가 지구인지, 항성인지 추론해봅시다. 이과생은 항성의 의미 자체가 '공전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생각해서 지구로 갔습니다. 문과생은 추론합니다.

[명시적인 근거1] 3문단 6행 '항성년은 지구의 공전 주기'  
 [명시적인 근거2] 3문단 8행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연결논리] 철수가 한바퀴 돌아서 폭포 앞 창가 식탁까지 60초라고 했으니까 온전히 한바퀴를 돌아올 때가 60초 항성년입니다. 그러므로 철수=지구, 항성=폭포, 태양=식당의 중심이다.  
 [결론] 답은 ⑤

5.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